

◆교회목표◆

천국일꾼을 키우자
지역사회에 봉사하자
우리 세대에 민족복음화를 이룩하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14)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오태희 편집국장: 조선근

..... 1953 · 교회설립 40주년 기념 · 1993

선교대회: 땅 끝까지 복음을

9월 1일(수) ~ 9월 3일(금), 선교보고대회 · 세미나 · 사진 및 서적전시회 등

이번 교회 설립 40주년을 맞이하여 교회에서 여러가지 행사를 치르게 된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설립 40주년 기념 선교대회다. 이번 선교대회는 "땅 끝까지 복음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93년 9월 1일(수)부터 9월 3일(금)까지 3일 동안 갈릴리학과 주변 교육관 시설에서 진행된다. 주제 성구는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와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이다.

이번 선교대회를 개최하는 목표는 첫째로 세계선교에 불붙는 사명감을 고취시키도록 하는 것, 둘째로 2천년대 세계선교를 향한 새로운 개념의 정립, 셋째로 세계선교의 제 2 도약을 위한 방향의 설정, 넷째로 세계선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선교세미나, 선교보고대회등

이 기간 동안에 행해지는 주요 행사로는 우선 선교세미나를 들 수 있으며 아울러서 선교보고회, 선교자료전시회, 선교대회 책자 발간 등이 있게 된다. 특별히 초청되는 강사로는 NORTON 목사가 있다. 이 분은 나이지리아에서 20년 동안 원주민 선교사역을 하신 분이시며 지금은 미국 Reformed Seminary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계신다. 또한 국내강사로는 강승삼 목사가 초청된다. 강 목사는 나이지리아에서 10년 동안 원주민 선교사역에 종사하셨으며 현재는 총회 선교국장으로 사역하신다. 아울러서 이 기간 동안에는 충현교회에서 파송한 모든 선교사님들이 초청되어 선교 보고를 하게 된다.

선교 보고 대회와 맞물려서 세미나의 시

간을 갖게 될 것이다. 세미나의 주된 내용은 2천년대를 바라보는 충현교회가 어떻게 선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를 논의하게 되는데 그 주된 내용은 선교사들이 각기 주제별로 지면을 통해 발표를 하게 된다. 먼저 당회장 신성종 목사의 "충현교회 선교의 비전"을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 다음으로 선교위원회 지도인 김양홍 목사의 "왜 선교해야 하는가" 육호기 선교사의 "이민 목회인가, 선교인가", 김은태 선교사의 "북방 선교를 위한 홍콩의 사명", 이준교 선교사의 "이슬람 선교, 과연 가능한가", 서만수 선교사의 "충현교회 선교의 새로운 길을 위한 제언" 김주경 선교사의 "현지 선교사의 지원을 위한 효과적 방법", 안석렬 선교사의 "효과적 선교를 위한 개교회와 타교회 단체와의 관계성 고찰"이라는 주제 하에 발표를 하게 된다.

이 외에도 현재사역 현황, 사역의 장애요소, 장애물의 해결 방안, 현 사역지에서의 선교 방향 및 비전 제시 등이 있게 되며 지역별 물가지수에 따른 선교비 책정문제, 자녀교육 및 복지문제, 원주민을 상대로 하는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의 선교정책 방향제시, 선교위원회의 정관 및 기본세칙 제정, 통과 등 다양한 선교 정책의 검토가 있게 된다.

사진 및 서적전시회

선교대회 기간 동안에는 우리의 선교사들이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가를 전 교인들에게 알리고 아울러서 선교의 일체감을 형성하며 기도의 동참을 위해서 몇 가지 행사를 결들이게 되는데 그 중의 하나로 사진 및 서적전시회, 선교물품 전시회이다. 이 전시회는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열리게 된다.

9월 1일 리셉션으로 대회 시작

전체적인 선교대회는 9월 1일(수) 오후 5시에 선교사, 강사, 교역자, 장로들이 함께 모이는 리셉션을 시작으로 실시된다. 이어 주 강사인 Norton 목사의 수요예배 설교가 있게 되고 다음 날인 9월 2일(목)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9시 30분까지 진행되는 이 날은 Norton 목사의 강의, 질의 및 토의에 이어서 김은태 선교사(홍콩), 안석렬 선교사(수리남), 김주경 선교사(이스라엘)의 선교보고가 있게 된다. 9월 3일(금)에는 강승삼 목사의 강의를 시작해서 이준교 선교사(이집트), 육호기 선교사(독일), 서만수 선교사(인도네시아)의 선교 보고가 있게 된다. 이 대회 후에 4일(토)에는 선교관계자들과 선교사와의 연속 회담이 있게 된다.

이 대회는 전체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비록 교회 내적으로 진행이 되기는 하지만 교회 외부의 사람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더욱 더 간절한 기도의 요청이 없이는 진행되기 어려운 사역이므로 선교위원회에서는 성도님들의 더욱 더 간절한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

원로목사 · 당회장 동정

1. 김창인 원로목사

· 6월7일-9일 이리 고현교회 부흥회 인도

2. 신성종 당회장 목사

· 6월6일 교회설립 40주년 기념 그림 그리기 대회 설교
· 6월10일 미주 선교찬양대 수련회 설교

1993년도 취업 및 진학을 위한
수험생 학부로 기도회

1993년도에는 8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실시되는 대입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고등부에서는 그동안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베다니홀)에 실시해 오던 수험생 학부로 기도회를 아래와 같이 변경 실시한다.

1. 기간 : 1993년 6월 7일(월) - 8월 20일(금) 매 주일은 제외

*제1차 수학능력시험일자 :

1993년 8월20일(금)

2. 장소 및 시간 : 베다니홀, 오전 10시 - 10시 40분

3. 대상 : 수험생 학부로

4. 인도 : 월, 화, 수, 토요일 - 장봉생 목사 (고등부 지도)

목요일 - 이병각 목사(대학부 지도)

금요일 - 윤삼중 강도사(청년1부 지도)

5. 진행

오전 10:00 - 10:10 찬양

10:10 - 10:20 말씀

10:20 - 10:40 기도

●이 사람을 만나보니●

그림그리기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현경 어린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주”

지난 5월 29일 수도노회 주교연합회 주최 제22회 그림그리기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김현경 어린이를 만나 보았다.

— 축하합니다. 기분이 어때요?

▶우리 교회에서 출전한 학생 가운데 저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학생이 있어서 제 이름이 불려졌을 때에도 나가지도 못했어. 나중에 확인 해 본 결과 제가 대상을 받은 줄을 알았어.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어.

— 언제부터 그림을 그렇게 잘 그렸어요? 그림으로 상을 탄적이 있어요?

▶유치원 다닐 때부터 잘 그린다는 말을 들었고 체신부 공모 포스터그리기 라든가 기타 학교에서 상을 탄 적이 있



어요,
— 앞으로 꿈은
?

▶화가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중학교도 예술학

교를 지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재주를 주신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성동국민학교 6학년, 교회에서는 초등6부 총성 8반, 12교구, 올림피아구역에 속해 있고 건축업을 하는 아빠(김정휘 성도)와 엄마(이강혜 성도) 위로 언니(현정, 중등1부)를 둔 현경이는 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하고 교회에서도 착실한 학생이다. 최근에 초등 6부에서 벌이는 배가운동에도 적극 참여, 친구를 교회로 인도하기도 했다.

이번에 그린 그림은 어린이공원의 분수와 주변의 숲을 그린 수채화. 어린이다운 고운 심성과 단순함이 잘 나타나 있다.

1953 · 교회설립 40주년 기념 · 1993

‘성경암송 및 그림그리기 대회’ 오늘 실시

성경암송대회 오전 10시 - 오후 5시, 교육관에서
그림그리기 대회 오후 2시30분부터, 본당 앞에서

교회설립 40주년 기념으로 실시하게 되는 성경암송대회 및 그림그리기 대회가 오늘 오전 10시, 성경암송대회를 시작으로 열리게 된다. 암송대회는 그동안 각 부처예선을 거쳐 본선에 나선 사람들을 대상으로 각 부학교의 예배시간이 마쳐진 후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열리게 된다.

또한 그림그리기 대회는 IV부 예배가 끝난 오후 2시 30분부터 본당 앞에서 열린다. 그림그리기 대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후 2시 30분 본당 앞뜰에서 대회를 위한 예배가 있고 이 시간에 당회장 신성종 목사가 설교를 한다.

1.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삼대 목적, 즉 예수님의 삼대 사역이 나옵니다. 첫째로 진리되신 예수님께서 어둠과 거짓 속에서 사는 우리 인생들에게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둘째로 항상 절망 속에서 살고 있었던 존재들에게 참 기쁨의 소식,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1)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는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하기를 원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등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려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질병에 걸리는 것일까요? 첫째로 질병에 걸리는 가장 중요한 큰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둘째는 시험으로 인해서 질병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요 2:7). 셋째는 과로로 인해서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이하에 보면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도 너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혹은 사업을 열심히 하다가 과로로 인해서 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넷째는 나이가 많아지면 질병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창 48:1, 10). 다섯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자고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가시를 허락하십니다(고후 12:7). 여섯째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요 3:9).

물론 그밖에도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이유 가운데서 과연 나는 왜 질병에 걸렸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질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능력으로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분 앞에 나와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내어 맡길 때는 주님은 그때와 똑같은 능력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 질병을 치유하는 방법

첫째는 병든다고 불구된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막 2:5)라고 했습니다. 둘째 방법은 예수님의 발 앞에 두는 것입니다.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병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앞에 두매”(마 15:30) 원문에 보면 ‘발앞에 방치해 둔다, 거기에 내버려 둔다’는 뜻입니다. 환자들이 병을 고치려면 의사에게 가서 의사에게 완전히 내어 맡겨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는 주님의 발 앞에 두어야 합니다. 완전히 주님께 내맡겨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에는 암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가 할 얘기는 그 얘기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본문에서 살펴보는 가운데,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병에서 놓임 받기를 원하시고, 또 친히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열심히 간구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2. 사천 명을 먹이심

본문 15장 32~38절에 보면 사천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이 너무 비슷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본문에 보면 3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을 굶주린 채 내보내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저희가 나와 함께 있는 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마 15:32)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천국 잔치에 참여를 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도 아무

것도 먹지 못한 채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살진 꼴을 먹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1)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때

충헌강단



병자들을 고치신 주님

(마 15:29-39)



신성종

<목사·당회장>

보리떡 일곱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일으킨 이 이적이 어떻게 해서 나타났습니까? 이적이 나타난 방법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35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땅에 앉게 하십니다. 이것이 첫번째 비결입니다. 땅에 앉아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앉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다리면서 저들은 앉았던 겁니다. 즉 겸손해야 합니다. 또 앉는다는 말은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받으려고 하는 겸손한 자세일 뿐 아니라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둘째는 “앉게 하시고 떡 일곱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축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셋째로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떼어서 주는데 그냥 떼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떼어 떼어 준 것을 가지고 제자들은 또 떼어서 줍니다. 떼어서 주었기 때문에 작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양을 혼자서 가진 것이 아니라 또 떼어서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간도 떼어주셨고 능력도 떼어주셨고 물질도 떼어 주셨고 다 떼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혼자 차지하려고 하면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이것을 남에게 또 떼어서 줄 때, 또 떼어서 교회에 바치고, 또 떼어서 구제하고, 또 떼어서 봉사할 때에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2) 기적의 결과와 배불리 먹은 자의 사명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을 때,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사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배불리 먹게 되었을 때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이히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마 15:31)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 마지막 목적은 전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배불리 먹은 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배불리 먹고 은혜를 받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거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배불리 먹은 다음에는 거두어야 합니다. 헌금도 거두고 힘도 거두고 모든 것을 우리가 거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하나의 조각이지만 부스러기이지만 이것이 함께 모으게 될 때에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일곱 광주리! 남은 조각이 원래의 칠병이어와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많은 분량입니다. 이것은 부스러기의 기적입니다. 둘째로 배불리 먹은 자의 사명은 “예수께서 무리를 흠여 보내시고”(마 15:39) 흠여 보내야 됩니다. 교회는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와 흠여지는 교회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은혜 받은 다음에는 직장으로, 가정으로, 사회로 흠여져야 됩니다. 흠여지지 않으면 안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에 성령충만함을 받고 나서 안 흠여지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는 수 없이 예루살렘에 펴박을 내려주심으로 인해서 저들을 흠여시켰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그 흠여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라고 했습니다. 흠여져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자꾸 흠여져야 됩니다. 모인 교회는 흠여진 교회로 변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자꾸 흠여져야 됩니다. 심장에서 흠여진 피가 온 몸을 돌아 다시 심장에 모이듯이 우리는 모였다 흠여지고, 흠여졌다 모이고 또 모였다 흠여져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교훈과 함께 기도제목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 예수님은 위대한 의사이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 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 근심, 걱정, 염려, 죄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만병의 의사이십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개혁하려고 하는데 이 사회가 온통 구조악으로 꽂혔습니다. 이것도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 예수님은 긍휼히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영육간에 굶주린 영혼들을 먹이시고 먹이신 다음에는 흠여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셋째로 주님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평강과 생활의 만족이라고 하는 귀한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의사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질병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굶주린 우리의 영혼들이 주님앞에 가서 주님의 발 앞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다 내어놓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아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땅 끝까지 흠여져서 하루 속히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오게 하는 복음의 역군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의 두 가지 리듬



세상에는 새벽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과 저녁을 중심으로 사는 두 가지 삶의 리듬이 있다. 저녁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즐기며 산다. 저녁 늦도록 있어야 하니 많이 먹어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노라면 자연히 함락에 젖기도 한다. 그래서 함락 산업은 밤에 피크를 이룬다. 이렇게 이 세상의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역사는 인간 정치의 역사이다.

그러나 반대로 새벽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성기며 산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려면 저녁에 일찍 자야 하니 많이 먹을 기회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 세상적인 함락을 누릴 기회도 별로 없다.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만났다 해도 새벽에 만나는 사람들은 저마다 바쁘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새벽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경은 “새벽을 깨우리다”(시 108:2)라고 한 것이다.

글 / 신성종 목사



제4회 충현올림픽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올림픽 제4회 충현올림픽 제4회 충현올



토막소식

- ◆ 유치부에서는 6월6일(오늘) 1부와 2부 예배후 교사실에서 십계명 암송 결선이 있다. 또한 6월중에 있는 초청전도대회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 ◆ 초등1부는 6월13일(주일) 반별찬송가 부르기대회를 교육관 212호 초등1부실에서 갖는다.
- ◆ 초등5부는 6월13일, 초등5부 자체에서 그림그리기 대회를 한다. 전 회원이 참여하여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 ◆ 중등3부는 6월27일,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를 중심으로 성경퀴즈대회를 한다.
- ◆ 청년1,2,3부 연합기도회가 오늘 저녁 찬양예배 후 베다니홀에서 있게 된다. 각 부교사와 회원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 ◆ 청년1부는 6월 6일(오늘) 오전 11시, 교

- 육관 514호, 청년1부 집회실에서 특강 시간을 갖는다. 주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이고 강사는 이형수 집사이다.
- ◆ 사랑부는 학생들의 연령, 장애정도 또는 지적수준 등이 고르지 못하여 교육공과를 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에 비추어 우선 교사들만이라도 공과를 채택하여 스스로의 영성개발과 신앙훈련을 기하고자 지난달부터 많은 교사들의 호응 속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 바울 남전도회 제8지회에서는 지난 5월 26일(수) 저녁 우리교회 군진도회의 지원을 받아 8교구 관내에 있는 제60사단 군부대를 방문하고 예배용 성경, 찬송 100권을 기증했다.
- ◆ 제13교구는 6월10일 목요일 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토록 하기 위해 교구 목요기도회 시간을 저녁 6시로 변경했다.

◆ 금주에 기도할 제목 ◆

다함께 기도합시다



1.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을 붙들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소서.
· 김창인 목사님 : 6월7일(월) - 9일(수) 이리 교현교회 부흥회 인도
· 신성종 목사님 : 6월6일(주) 교회설립40주년기념 그림그리기대회 설교
6월10일(목) 미주 선교찬양대 수련회 설교,
6월7일(월), 11일(금) 장로님 심방
2. 교역자님들과 장로님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신 직분 잘 감당하게 하소서.
3. 모든 불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4. 교회설립 40주년기념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및 그림그리기 대회를 통해 주님의 말씀과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수도노회 주교연합회 주최
그림그리기 대회

우리 교회 학생들 입상

대상 - 김현경(초등6부)

지난 5월29일(토) 어린이대공원에서 가진 수도노회 주교연합회 주최로 열린 제22회 그림그리기 대회에서 우리 교회 학생들이 참가하여 대상을 비롯한 각 부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대상(전체에서), 각 부별 최우수, 특선, 가작, 입선으로 시상됐는데 우리 교회 초등6부 김현경양이 대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많은 학생이 입상했다. 입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대상 : 김현경(초등6부)
- (유년부문)
- 특 선 : 이성은
- 가 작 : 김심정
- 입 선 : 김민석, 백혜수, 조요셉
- (초등부문)
- 최우수 : 박상희
- 특 선 : 이경옥, 김인애
- 가 작 : 이형주, 김성은
- 입 선 : 황수연, 천지영, 안수현, 김양선, 추민경, 송민정, 배지혜, 이유미 권에스터,
- (중등부문)
- 최우수 : 최은진(중등2부)
- 특 선 : 김린도(중등2부)
- 입 선 : 민경내(중등2부)

직원모집

금번 본 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주안에서 성실히 일할 가족을 찾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직 종 : 사무직 여○명, 경비직 남○명
- 연 령 : 남 40-45세, 여 20-21세
- 자 격 : 각항 공히 세례교인으로써 성수주일 할 수 있는 자, 여직원은 PC 경험자
- 제출서류 : 1. 이력서 1부(사진첨부)
2. 교구목사 추천서(본교인) 1부
3. 당회장 추천서(타교인) 1부
- 제출기한 : 6월15일까지
- 제 출 처 : 충현교회 사무국
☎ 552-8200(교 402)

● 제4회 충현올림픽을 끝내고 ●

“성도의 교제와 질서의 축제”

3개월 13일동안 준비해왔던 제4회 충현올림픽이 지난 5월28일 오후 5시 막을 내렸다. 이날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충현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무척 좋은 날씨까지 허락해 주셨다.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지만 맑은 하늘, 그리고 오후엔 더운 기온을 식혀주기 위해 구름까지 덮어 그리 덥지 않은 하루를 보내게 하셨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약 100일간의 준비를 통하여 조직위원들과 각 부서 부처장들은 빈틈없는 기획과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다. 어떤 경기 종목이나, 혹은 경기에 필요한 모든 행정수단, 인원동원방법, 또 시상품에 이르기까지 조직위원 전원합의제를 채택했으며,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기획을 변경시켜 합의의 도출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시켰다. 충현퍼펙트를 공개로 뽑은 일, 표어를 공모하여 심사위원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확정하는 일은 본보기의 한 예이며, 모두가 '나의 일'이란 공개념을 형성키 위해 설명회를 여러번에 걸쳐 실시한 것도 준비방법의 수단으로 도입한 것이다.

기초조사에서 경비절감, 예산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자료를 토대로 하여 유니폼도 선수에게만 지급하고, 시상품대신 팀 칼라로 표시된 다용도 보자기로 대체했다.

개회식을 짜임새있게 하기 위해 풍선 날리는 것도 지양하고 찬송가 연주로 했으며 장내질서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장내 아나운서로 하여금 안내와 공지를 하도록 했다. 예정된 시간의 경기 및 레크레이션 마무리 하기 위해 진행부에 고등부학생 10여명을 경기보조요원으로 선임 순발력있게 게임과 게임의 연결고리를 끊어지지 않게 질서있게 진행시켰다.

심판부가 심판교육을 철저히 시켜 경기 진행상 하자가 없도록 힘썼고, 지나친 경쟁의식을 지양키 위해 '옐로 카드제'를 실시했다.

지원본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인참여를 적극 유도했는가 하면, 시설관리도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빈틈없이 설치했다. 의료부의 개설이라든가, 임시매점을 만들어 교인들 식사 및 간식구입에 도움을 주었고 주차관리를 철저히하여 경기장 혼잡을 사전



제4회 충현올림픽
기획본부장 손 경 수 장로

에 봉쇄하는 치밀성을 보여줬다.

봉사담당자들은 각 연합교구팀에게 생수를 직접 돌려 교인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힘썼고, 미야발생을 예방하고 찾아 주기 위한 미야보호소 설치, 잃은 물건 찾아주기 등은 큰 성과를 얻었다.

경기기록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종합계시판을 만든 것이나, 전력부가 각팀과의 유선망을 설치하여 시간단축을 기하였고, 경기장 라인작업을 핏가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색깔끈을 사용하여 선수들 발에 의해 지워지지 않는 반영구적 경기장 라인작업은 이번 행사의 획기적인 방법이었다.

특히 이번 제4회 올림픽에서 그냥 지나치기가 아쉬운 면면들이 있었다. 그것은 다름아닌 응원전과 가장행렬이었다. 연합교구가 힘을 합쳐 응원기구를 마련하고 돋보인 응원을 한 점, 그리고 훌륭한 기획과 연출로 가장행렬을 극적효과로 승화시킨 점은 충현인의 자량이다.

어느 팀의 단장 장로님은 팀의 전가족과 한 몸이 되어 함께 응원하고, 앞장서서 응원을 지휘하는 것을 보고, 충현가족 친교 표본을 제시하기도 했다. 팔짱끼고 남의 일처럼 구경만 하던 구시대적인 행태는 사라졌으며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한다는 한 목소리에 모두들 공감대를 형성하는 충현의 한 마당이었다.

당일 12시 현재 진행본부에 올라온 인원 통계에 의하면 총 5,135명이었으며 점심식사 이후 계속 들어오는 성도들로 정신여고

교정이 오히려 작게 보였다. 이미 입장식 때 선수들로 타원형의 운동장이 보기 좋게 공간을 메꾸었고, 일신여성 밴드부가 연주하는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가 259장/주제 찬송)는 우리들을 흥분케 하였다.

루디아 협의회 회원들에 의해 운영된 임시매점은 순이익과 함께 교회구제비를 50만원 이상 현금했다는 봉사정신을 발휘했다.

이번 행사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한 여러 분들이 많이 있었다. 기획부의 전승훈, 전은배 집사, 김차철집사, 구현숙양, 총무부의 윤상언 집사, 섭외부의 김준권, 안성영 집사, 홍보부의 이승철, 이형수집사, 박형주 양 그리고 진행부의 김광호집사, 시설관리부의 김신집사의 음향실직원은 행사준비와 진행의 핵심이었다.

또 당일경기현장에서 지원본부 산하 김영길 장로, 이하영 장로, 최명환 집사, 허명호 집사, 손철 집사의 눈부신 활동도 돋보였다.

각 연합교구의 단장 및 부단장, 총감독의 수고를 잊지 않으며 조직위원회 각종 지시를 잘 따라준 충현의 가족 여러분에게도 고마움의 예의를 보내고 싶다.

충현 40년의 부흥성장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회성장의 계기를 재창출키 위한 체육신앙 공동체의 충현올림픽이 하루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날 가졌던 기쁨, 흥분, 절정, 성도의 교제가 오래도록 지속되었으면 하는 심정이다.

이제 충현햇물은 서서히 꺼지고, 땅거미가 처진 정신여고 운동장에서 합성과 체력의 난무가 할퀴고 간 고독의 현장에서 미흡하나 새로운 힘을 주시겠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서, 기도해주신 원로 김창인 목사님, 당회장 신성종 목사님과 당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준비에 여념 없었던 조직위원장 우기전 장로님과 조직위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추신 : 당일 종합 시상식에서 각 팀별 시상품은 여러분들이 입상할 때 받은 보자기·썬캡·헤어밴드 입을 알려드립니다.)